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애면글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애면글면이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애면글면

완성된 이름

애면글면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애면글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애면글면		
이명결명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 우리가 알고있는 '애면글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몹시 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모양.

☞ 애면글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애면글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애면글면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이명결명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애명글명 문헌 수록 표기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애면글면
20세기현재
- 이명결명
20세기

애면글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건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애면글면’은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말의 구성과 어원

‘애면글면’은 제2음절과 제4음절의 ‘면’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아 ‘애면’과 ‘글면’이 결합한 것으로 보이나, ‘애면’과 ‘글면’이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20세기에 ‘애명글명’, ‘이명걸명’ 등 여러 형태가 쓰였는데, ‘애명글명’은 제2음절과 제4음절의 종성 ‘ㄴ’이 ‘ㅇ’으로 바뀐 것이고, ‘이명걸명’은 ‘ㅣ’와 ‘ㅈ’가 표기에서 섞여 쓰이면서 나타난 표기이다.

문헌 속의 애면글면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20세기 이명걸명, 애면글면, 애명글명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이명걸명, 애면글면, 애명글명

출처 1912 만인계 13

용례 01

66 문헌 용례

이 지물로 말하면 제 손으로 이명결명 모은 거시니.

현대어 풀이

이 재물로 말하자면 제 손으로 애면글면 모은 것이니.

출처 1924 조선일보 5월 12일 4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밤잠을 못 자 가면서 애면글면 베백이나 추수하는 고로 살아가기에 큰 걱정은 업슬 만치 되닛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5 동아일보 8월 4일 조간 3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아버지의 힘도 도아들리고 애명글명 살고자 하는 어머니의 군색한 살림사리의 시중도 들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6 조선일보 6월 27일 조간 4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그러나 허 서방은 이러케 두 발목에 무거운 쇠사슬을 얹매고 애면글면 영쇠판을 허덕거리면서 겨트로논 아주 만고태평이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일보 6월 21일 석간 5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애면글면 아무리 곡경에 떠러저도 누구 하나 드러다봐 줄 사람 업던 은파의 경우엿던지라.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애면글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애면글면의 뜻과 역사](#)